

광주 5·18과 너무 닮은 이집트의 오늘...

카이로 시민이 광주인권평화재단에 보내온 사진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1주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이집트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이집트 시민이 전송한 사진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카이로에 거주하는 모하메드씨가 페이스북으로 보내온 시위 및 진압 장면을 담은 사진들. 시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해 민주화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자 이집트 당국은 28일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전면 차단했다.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대를 폭행하는 모습 등이 80년 5·18 당시 광주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광주인권평화재단 제공>

“무바라크 퇴진” 이집트 시위대 도심 장악

뱅크·장갑차 곳곳 배치... 軍과의 충돌은 없어
엘바라데이, 야당·반정부단체 교섭대표로 나서

30일 오후 이집트 수도 카이로와 수에즈 등 주요 도시에는 군인과 탱크, 장갑차 등이 배치된 가운데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6일째 이어졌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새 내각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야권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경제 개혁에 나섰다. 이집트 내 야당과 반정부 단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무바라크 정권에 보다 개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도심 장악한 시위대...통금 무용지물 = 이날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에는 날이 밝으면서 시민들이 한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해 오후 들어 규모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오마르 술레이만은 미국의 대리인’ 또는 ‘무바라크, 비행기가 가다리고 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완전 퇴진 등을 요구했다. 탱크, 장갑차 등이 주요 지역에 배치되고 군인이 곳곳을 장악했지만 군인과 시위대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통행금지 실시됐으나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무바라크의 퇴진을 촉구했고 군도 통금을 어긴 시위대에 대해 연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군 전투기 2대가 광음을 울리며 카이로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헬기가 시위대가 몰려 있는 지역 주변을 순회했으며, 어둠이 내리면서 군 트럭이 증강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위대는 월요일인 31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해 유혈 충돌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최소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리라는 사망자가 15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금지해 물린 무바라크 =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된 술레이만 부통령과 총리 등은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은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 등 군 지도자들을 만나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무슬림형제단 등 반정부단체들은 그러나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내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과도 정부 구성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카이로 도심 시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CNN 방송과 인터넷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임시 대통령을 맡을 용의가 있는느냐는 질문에

“이집트 국민이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가교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그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 아라비아TV는 시위군중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엘바라데이를 과도정부의 책임자로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치안 공백-약탈·탈출 등 혼란 = 전날 밤 일부 폭도들은 경찰이 철수한 공백을 틈타 상가를 부수고 물건과 식료품 등을 약탈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궁 인근의 헬리오폴리스 지역을 포함한 카이로 곳곳에서는 흉기로 무장한 약탈자들이 슈퍼마켓과 소규모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금 지갑기도 약탈자들에게 달려 작동이 중단됐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450명, 수에즈에서 63명 등의 약탈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카이로 인근 파용과 와디 나트룬 등지의 교도소에서 수감자 수천여 명이 전날 밤 탈옥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軍·부통령도 무바라크 퇴진 요구”

이집트에서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30일 군과 부통령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선데이 타임스 인터넷판은 이집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전날 임명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모하메드 탄타위 국방장관이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권력이양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그가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이 ‘점잖게’ 물러날 방법을 마련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광장히 완고하고, 30년 장기집권을 끝낼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도 술레이만 부통령이 과도정부 수반을 맡을 준비가 돼 있지만, 정작 무바라크 대통령이 권력이양을 승낙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집트 국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날 TV연설을 통해 약속한 정치개혁의 방법이 매우 모호하며 대통령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 등 이집트 체류 외국인 대탈출 시작

이집트에서 사상 초유의 반(反)정부 시위가 여섯째 이어지자 한국을 포함한 각국 교민들이 정부 및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대피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은 30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아프리카지역본부를 임시 폐쇄하고 주재원의 경우 중동지역 본부가 있는 두바이로, 가족은 전원 귀국토록 조치했다.

이집트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전자 현지 법인인 주재원의 가족 30명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귀국을 지원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지사도 가족들을 공항 근처 호텔에

투숙해 놓은 뒤 내달 1일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토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집트도 관광이나 성지순례를 온 한국인 여행객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는 길을 찾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 61명 역시 다음달 1일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주이집트 대사관은 카이로 등지의 치안 공백으로 교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수 요원 이 아닌 교민의 경우 귀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호주일리호 오만 입항... 한국선원 7명 오늘 귀국길

소말리아 정부 “해적 시신 인수”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구출된 삼호주일리호의 오만 무스카트항 입항이 허가돼 한국인 선원 7명이 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또 ‘아덴만 여명작전’ 중 사살된 해적의 시신 8구는 소말리아 정부가 인수키로 했다.

정부 신속대응팀 신명호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주오만 한국대사

관에서 “오만 항만당국이 오늘 오후 삼호주일리호의 입항을 허가했다”며 “이에 따라 삼호주일리호는 31일 중 무스카트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원들은 배가 부두에 접안하면 건강검진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친 뒤 배에서 내려 무스카트에서 하루 머물고 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삼호주일리호 선원들의 귀국과 관련 외교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오늘 입항하

게 되면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고 내일 오만을 출국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레(2월2일)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사인 삼호해운은 현재 무스카트항 외항에 머물고 있는 삼호주일리호가 31일 오후 1시께 부두에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호주일리호는 조항장치 등이 고장나 침체부대 최영환의 호위 아래 입항한다.

삼호해운 조응우 인사팀장은 “한국인

선원 7명 전원이 귀국을 희망했다”며 “선원들이 설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호주일리호 병동실에 안치된 해적의 시신 8구는 소말리아 정부에 인도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편 해적으로부터 팔과 다리,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수인 아주대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은 삼호주일리호 석해균(58) 선장의 건강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삼호주일리호 해적사건 특별 수사본부는 “생소 해적 5명 중 1명이 한때 ‘내가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산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2004-4738호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 몸매가 모래를 뺀다는 거기에다 흠뻑 젖어 주니 향기나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가슴과 신체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체지방이 10% 미만인 것만으로도 놀라웠다. 반응적이지 않음 해시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 범죄 예방도 된다 내여자가 인기 폭발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제조입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젊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4114-09 우회점

생노병사 불노장정 책을 드립니다

1577-4101

010-8558-4114, 010-8952-4114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드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